

[기획]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로비스트’는 무엇이고 왜 문제 되나

■ 세계의 로비 문화

미국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 규제 유럽 관행적 묵인 속 활발한 활동 일본 불투명한 로비로 폐해 많아

‘로비’의 역사나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로비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미국은 로비를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는 반면, 유럽은 관행적으로 로비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일본은 ‘요정로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비의 폐해가 큰 나라에 속합니다. ▲유럽=‘로비스트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로비문화’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특히 유럽 의회는 ‘로비스트’의 활동이 가장 뚜렷하게 전개되는 곳입니다. 유럽의회가 내린 결정은 25개 회원국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나 환경·소비자 단체들은 ‘로비스트’를 통해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는 유럽 의회에서 ‘로비스트’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문 ‘로비스트’에게 ‘과외’를 받은 뒤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프랑스=뇌물 수수나 ‘로비스트’의 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나라로 꼽힙니다. 외국에서 사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로비스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음성적 ‘로비 문화’ 개선을 위해서 ‘로비’에 대한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바다이야기 파문’ 당시 ‘로비스트와 브로커, 경계선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 현장.



‘삼성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일가가 비자금’을 이용해 그가 미술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투명한 로비 대신 ‘검은 거래’로 정책 왜곡

입법·정책결정 관여 전문직업...美선 등록해야 활동 국내 ‘삼성 비자금 파문’ 속 ‘로비스트법’ 다시 주목

최근 TV 드라마 ‘로비스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로비’의 대명사가 된 ‘린다 김 사건’과 ‘신정아 사건’ 등 각종 이슈를 예외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로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로비 의혹’ 폭로 등과 맞물려 ‘로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본래의 뜻과는 달리 뇌물공여나 어두운 ‘뒷거래’ 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비’는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전문직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성적인 ‘불법 로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로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로비스트’의 합법화를 통해 음성적인 ‘로비’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로비’의 합법화는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로비’와 ‘로비스트’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로비스트’란 무엇인가요?

‘로비스트(lobbyist)’란 미 의회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미 하원 의사당 로비(lobby)에는 각종 정책과 관련된 법안 투표를 앞두고 수많은 기업과 단체 관계자들이 하원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고 반영시키기 위해 모여들기 마련인데 이들을 가리켜 로비스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나아가 중요 정책결정권자에게 접근해 특정 기업·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법률 및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집단에 고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2 ‘로비스트’ 왜 문제 되나?

‘로비’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으로 진행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삼성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를 해온 혐의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기업적인 성향의 인사를 설득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해 ‘검은’ 뒷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삼성 외에도 국내 재벌기업들이 소속 임직원을 통

해 직·간접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정부의 고위직 퇴직 관리들을 영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도 자신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음성적인 ‘로비’의 실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투명한 ‘로비’를 통한 정책결정은 엄청난 재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외환은행 로비 의혹’의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지분을 인수한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로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이 사건은 ‘최대 8천252억원 만큼 현금으로 매각됐다’는 검찰 발표의외에 4조2천억원대의 국부유출 논란으로 이어지는 등 음성적 ‘로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비’가 음성화될 경우 ‘검은’ 돈이 오가고 왜곡된 정책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3 해외와 우리나라 차이점은?

해외에서 ‘로비스트’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만큼 공식적인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됩니다. 또 미국의 경우 짧은층을 중심으로 ‘로비스트’가 매력적인 유망직종에 꼽힐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로비’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은 의회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대 의회 로비스트’를 고용하는가 하면 직접 의

회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로비스트’로 대통령을 꼽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로비스트’가 사법부나 연방정부 등에 로비를 하기 위해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난 1995년 ‘로비 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등록은 물론, 활동 주제나 목적 등 각종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원권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미국 헌법에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청원권의 일환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로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비활동’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4 합법적인 ‘로비스트’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바다이야기 사태’ 등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로비스트’ 합법화가 공론화됐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좌절됐습니다. ‘로비스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데다 ‘로비’를 양성화할 경우 오히려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 비자금 파문이 크게 확산되면서 ‘로비스트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로비스트법’의 주된 골자는 ‘로비활동 공개’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로비’ 활동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불법 ‘로비’를 최소화시키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은 금융수사나 대가성 여부와는 별개로 ‘로비’ 활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반드시 금전거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유럽의회 대표단이 본회의 개원식을 갖고 있다. 유럽의회는 25개 회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로비스트’들의 주된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실제 프랑스의 군수 항공산업 분야 대기업들은 외국을 대상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관례적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해 계약 규모의 1~2%를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다만 지난 1999년 제정된 ‘외국 공무원 부패 규제법안’에 따라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로비스트’ 활동을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위에서 물러난 뒤 최소 2년간 ‘로비스트’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로비’ 활동을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신 ‘요정로비’로 불리는 불투명한 ‘로비’가 많고, 정치자금에 빙자한 뇌물 공여도 많습니다.

각종 이권을 둘러싼 ‘검은’ 자금의 흐름에는 항상 정치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각책임제여서 중앙 부처의 대신이나 장관들이 모두 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소속 당의 영수들입니다. 따라서 제계의 ‘로비’는 당에 집중되게 마련이고, 고위 관리들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통상성의 정책 방향은 일본은 물론, 세계 산업계의 명암을 가르는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통상성을 비롯한 일본의 각 부처 주변에는 ‘로비스트’들이 삼구합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DAEWOO ELECTRONICS DC 난방비 절감율 83% 효율 대우냉·난방기. Includes promotional text,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aewoo Electronics.